

비평 논문

편집된 논쟁

문지호†

천두슈 외, 한성구 옮김, 『과학과 인생관: 20세기 초 중국 사상계를 흔든 과학과 인생관 논쟁』 (산지니, 2016), 620쪽

1923년 2월 중국의 철학자 장견마이(張君勱)는 “인생관”이란 제목의 강연에서 과학이 지닌 능력의 유한함을 지적하였다. 그는 과학과 인생관의 차이를 설명한 후 “과학이 어떻게 발달하든지 간에 인생관 문제는 결코 과학이 해결할 수 없으며 오로지 인류 자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주장했다. 장견마이의 강연 내용은 곧바로 『청화주간(淸華週刊)』에 발표되었고, 같은 해 4월 지질학자 덩원지앙(丁文江)이 장견마이의 주장에 반박하는 글, “현학과 과학 - 장견마이의 ‘인생관’을 평함”을 『노력주보(努力週報)』에 실으며 과학과 인생관을 주제로 한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처럼 장견마이와 덩원지앙의 대립을 시작으로 촉발된 일명 ‘과학과 현학 논쟁’은 이후 당대에 영향력 있는 학자들이 여러 저널에 관련 주제의 글을 잇달아 발표하며 20세기 전반 중국 지성사를 대표하는 논쟁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논쟁의 초기 결산은 두 권의 책으로 묶여 나왔다. 상해 아동도서관(亞東圖書館)과 태동도서관(泰東圖書局) 두 출판사에서는 논쟁이 시작되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1923년 12월, 과학과 현학 논쟁과 관련하여 여러 저널에 흩어져 실린 글 29-30편을 모은 후 별도의 서문을 붙여 책으로 편집했다. 두 출판사는 각각의 편집본에 각각 『과학과 인생관(科學與人生觀)』과 『인생관 논쟁(人生觀之

† lunatea3@gmail.com

論戰)』이란 제목을 달아 출판했다. 둘은 거의 동일한 텍스트를 담고 있지만 목록의 편집에서 차이를 보이며, 그 중 일부 2-3개 글들은 공유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두 책은 서로 다른 이가 서문을 썼다는 사실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전자의 서문은 과학파를 대표하는 것으로 알려진 천두슈(陳獨秀)와 후스(胡适)가, 후자의 서문은 현학파의 대표로 알려진 장견마이가 썼다. 흥미롭게도 두 권의 책은 각 서문 작성자들이 자신들의 시각에 맞춰 두 책에 실린 글들의 성격과 의의를 설정하려 했다는 특징이 있다.

2016년 한국에 번역된 『과학과 인생관』은 천두슈와 후스가 서문을 쓴 아동도서관 판본을 따른 것으로, 본문 29편은 발표된 시간 순으로 수록되었다. 본 서평은 『과학과 인생관』 책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기존의 ‘과학과 현학 논쟁’을 분석한 연구들을 통해 이 책이 지닌 사료로서의 의미를 되짚는 한편, 과학사 연구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는 지점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과학과 인생관』에 펼쳐지는 과학과 현학 논쟁은 중화민국 시기(1912-1949) 각 사상계를 대표하는 학자들이 대거 참여한 논쟁이니 만큼 당시 중국의 사상을 이해하려는 사상사 연구의 계보에서 줄곧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논쟁에 참여한 토론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논쟁의 시발점을 제공한 장견마이와 덩원지양 이외에, 후스, 량치차오(梁啟超)와 같은 다수의 저명한 철학자들이 포함돼 있었고, 과학(지질학, 응용 화학 등), 법학, 교육학, 심리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을 망라했다. 이들 중 대다수는 미국, 서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 유학하거나 생활한 경험이 있어 상대적으로 서구 문명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과학과 현학 논쟁은 서구의 과학을 기본적인 정신과 태도, 방법으로 삼아 중국인을 개조해야 한다는 과학파와, 인생관은 외재적인 물질 문명이나 그 바탕에 깔린 과학이 결정하거나 규정할 수 없다는 현학파 간의 대립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¹ 논쟁의 주요 쟁점은 1)과학의 기능, 2)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정의 및 관계, 3)과학과 인생관의 규정 및 범위의 차이로 좁혀볼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과학이 인생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인류는 어떤 인생관을 세워야

¹ 과학과 현학 논쟁에 대한 서술은 일반적으로 과학파와 현학파의 논쟁이라는 명확한 대립 구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연구자들 사이에서 각 파에 속하는 인물들이 누구인가를 두고 일부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덩원지양과 후스를 과학파의 대표자로, 장견마이와 량치차오를 현학파의 대표자로 꼽는다.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핵심 화두였다.²

딩원지앙을 지지한 과학파는 과학의 본질은 과학적 방법론에 있다 여겼는데, 덩원지앙에 따르면 과학적 방법을 통해 “세상의 사실들을 분류하고 질서를 찾아”낸 이후 잘 분류되고 분명해진 질서에 기반하여 “매우 간략한 언어로 수많은 사실들을 개괄”한 과학 법칙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³ 그러므로 과학적 방법론은 특정 대상에 한정되지 않는 ‘보편적’ 방법으로서 그 분석 범위에서 심리 현상 또는 인생 문제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반면 장쥔마이를 지지한 현학파는 인간은 인과율이 적용되는 자연 현상과 달리 직관적이고 주관적이며 자유 의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객관적이며 인과율에 토대를 둔 과학적 방법을 인생관의 영역으로까지 확장,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인간 고유의 자유 의지의 표출인 인생관 문제가 과학적 방법을 통해 물리 현상으로 환원된다면 결국 자유 의지는 결정론적으로 해소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장쥔마이의 경고에 의하면, 과학파의 주장은 인간의 도덕성에 어떤 평가도 내릴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말 것이었다.⁴ 즉, 과학파와 현학파는 과학적 방법론을 세계 현상의 어느 범위까지 적용시킬 수 있을지의 문제에 관해 첨예한 이견을 드러낸 것이다.

장쥔마이와 덩원지앙의 설전 이후 과학과 현학 논쟁은 더 많은 논쟁점들을 포괄하기 시작했다. 특히 『과학과 인생관』의 중후반 쪽에 실린 글들에서는 여러 배경의 논자들이 과학과 인생관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과학을 인생관의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의 “유능과 무능” 문제에 대한 관심 외에도 교육학의 관점에서 과학 교육의 만능성의 영향을 논의하거나, 심리학자의 관점에서 각 논쟁에서 언급되는 심리학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지적하는 논의 등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⁵

2 리쩌허우, 김형중 옮김, “1920년대 과학과 현학 논쟁”, 『중국현대사상사론』 (한길사, 2005), 105-125.

3 천두슈 외, 『과학과 인생관』, 68.

4 현학파들은 과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과학의 정확한 적용 범위에 관해서는 내부적으로 다시 의견이 갈렸다. 장쥔마이와 린자이핑(林宰平)은 과학 혹은 과학적 방법은 심리 현상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모든 인생 문제에 응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 반면, 량치차오와 왕핑핑, 판서우캉(范壽康) 등은 과학 혹은 과학적 방법은 인생 문제의 일부 분은 해결할 수 있으나 주관과 관련되는 부분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제한적 과학 허용론을 폈다. 정귀화, “1923년 중국의 문화논쟁: 과학과 현학의 논쟁”, 『중국문제연구』 5 (1992), 95-118 참조.

이처럼 여러 입장이 난맥을 그리던 『과학과 인생관』은 과학의 발전을 통해 무정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정치 이념을 제시한 사상이 우즈후이(吳稚暉)의 글로 끝을 맺는다.⁶ 우즈후이에 따르면 과학은 인생관을 포함하여 무엇이든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었다. 그는 정신과 물질이 함께 최고 수준에 도달할 때 도래하는 ‘대동 사회’, 즉 사유 재산과 국경이 없고 윤리에 의해 사회가 유지되는 무정부 사회를 꿈꿨다. 이 과정에서 물질 문명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으로서 과학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특히 이처럼 궁극에 도달한 물질문명으로부터 이상적 무정부 사회를 이끌어낸 우즈후이의 주장은 객관적인 물질적 조건이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은 당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생각과 부합했다.

이 지점에서 『과학과 인생관』으로 번역된 원저의 대미를 우즈후이의 글로 구성한 이들이 바로 이 책을 편집한 천두슈와 후스라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즉 이 책의 편집자로서 우즈후이의 글을 마지막에 배치한 두 사람은 논쟁의 당사자이기도 했으며, 그런 만큼 이 책의 구성은 두 사람이 쓴 글의 내용만큼이나 그들의 의증을 형식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천두슈는 책의 서문에서 과학파, 현학파 할 것 없이 모두 유심주의를 전제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객관적이고 물질적(인) 요소만이 사회를 변동시키고 역사를 해석하며 인생관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며 우즈후이와 비슷한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⁷ 천두슈와 함께 서문을 쓴 후스 역시 “지금부터는 과학과 인생관 논쟁의 전

5 이를 두고 허증은 “이 논쟁은 인생관 문제로부터 촉발되어 과학의 대상과 적용 범위를 놓고 다투는 과학과 현학(철학) 논쟁으로 발전했다가 중국에는 현실적 실천논리로 대립하는 이념 논쟁으로까지 국면이 전환되었다.”라고 평가했다. 허증, “1920년대 ‘과학현학’ 논쟁과 ‘救亡’ 의식”, 『대구사학』 103 (2011), 242. 과학과 현학 논쟁 내부의 다양한 입장은 천두슈 외, 『과학과 인생관』 중 쑤푸위엔(孫伏園), 쥐농(菊農), 루즈웨이(陸志韋), 우즈후이 등의 글 참조.

6 천두슈 외, 『과학과 인생관』, 444-585.

7 같은 책, 21-22. 과학과 현학 논쟁에 대한 일부 연구는 이 논쟁을 과학파와 현학파의 이중 대립 구도로 분석하는 틀에서 더 나아가 과학파를 다시 ‘유물 변증론자(유물 사관파)’와 ‘유심 자유주의자(과학 방법파)’로 나누어 전자에 천두슈를 대표로 하는 마르크스주의 지식인들을 따로 구분하는 삼중 대립 구도의 관점을 채택한다. 마르크스주의 지식인들을 과학과 현학 논쟁의 한 축으로 보는 입장은 중국 학계의 일반적인 입장이기도 하다. 중국 학계는 마르크스주의 사상의 확산, 공산당 창건의 맥락의 연장선 상에서 과학과 현학 논쟁을 이해했고, 이런 관점은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김대환, 백영서는 과학과 현학 논쟁을 “유물사관파가 개입하여 사회 변혁의 초기 논리를 모색했던 사건으로 평가하며 이 논쟁을 당시 중국 공산당이 근본적 과제로 여겼던 정치, 경제 구조의 변혁을 모색했다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김대환·백영서 편, 『중국사회성격

선에서 후발 대장인 우즈후이 선생이 선봉을 맡을 것”이라며 우즈후이의 주장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글을 썼다.⁸

서론에서 우즈후이의 주장을 옹호하고 우즈후이의 글로 마무리되는 책의 구성은 장쑤마이가 편집한 『인생관 논쟁』의 구성과는 상당히 다르다. 『인생관 논쟁』에 수록된 마지막 글이 과학과 인생관의 차별성을 설명하고 이 둘의 이상적인 화합을 주장한 왕핑링(王平陵)의 글이란 점은 두 판본이 단순히 시간 순으로 배열된 글의 묶음이 아니라, 상이한 편집자의 상이한 목소리가 들어간 결과물임을 보여준다.⁹ 더구나 1923년 이후에도 ‘과학과 현학 논쟁’과 관련한 글들이 계속 나왔다는 점에서 이 책은 논쟁의 ‘최종’ 결산이 아니라 논쟁의 ‘중간’ 정리에 가까운 성격을 지녔다 볼 수 있다.¹⁰

『과학과 인생관』을 읽거나 이 책을 ‘사료’ 삼아 과학과 현학 논쟁을 연구하기에 앞서 『과학과 인생관』이라는 텍스트 자체가 논쟁에 개입한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행위의 산물이라는 점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이 논쟁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논쟁이 과학파의 ‘승리’로 종결되었고 그 이후 중국에 과학주의가 팽배하고 전통 문화를 철저히 배격하게 되었다는 해석이었다.¹¹ 그러나 이런 해석이 논쟁자들이 특정한 논쟁 국면에서 만들어낸 과학파와 현학파라는 이분법 자체를 그대로 따라간 결과는 아니었는지, 또한 지금까지 학자들의 분석이 논쟁 당사자들인 천두슈와 후스가 직접 논쟁 참여자들의 글을 묶어낸 ‘편집된 사료’ 이상 나아가지 못한 것은 아니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같은 해에 출판되었다 할지라도 누가 편집한 판본인지에 따라 글을 종합하는 내용의 서론과 수록된 글의 목차 구성이 다른 점은 ‘과학파의 승리’라는 초기의 평가 자체를 재고

논쟁』(창작과 비평사, 1985), 11-49 참조.

⁸ 천두슈 외, 『과학과 인생관』, 38.

⁹ 왕핑링의 글은 천두슈 서문 판본에서는 총 31개 글 중 27번째에 수록되어 있다. 같은 책, 404-407.

¹⁰ “1981년에 랴오닝대학 철학과에서는 1923년부터 1939년까지 발표된 논문 가운데 ‘과학논전’과 관련된 논문 80여 편을 모아 『중국현대철학사 자료회판: 과학과 현학 논전』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도 1923년의 『과학과 인생관』은 과학과 현학 논쟁의 초기 논설문만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천두슈 외, 『과학과 인생관』, 587. “저자 해제” 각주 참조.

¹¹ 안대옥, “五四시기 ‘科學과 人生觀’ 論戰과 科學主義 再論”, 『중국사연구』 80 (2012), 169-201; D. W. Y. Kwok, *Scientism in Chinese Thought, 1900-1950* (Yale University Press, 1965), 135-200.

해 볼 여지를 남긴다.

과학사의 영역에서 『과학과 인생관』이라는 사료로 중간 결산된 과학과 현학 논쟁은 20세기 초엽 중국의 변환기에 벌어진 주요 ‘과학’ 논쟁이었음에도 과학 사학자들의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다. 이는 논쟁에 참여한 과학자가 매우 적었고, 이 논쟁이 현대 중국 과학의 형성에 기여한 바가 미미하다는 암묵적 평가 때문이었다.¹² 그렇다면 과학과 현학 논쟁은 그저 담론상의 격전이었을 뿐, 그 배경과 여파가 당시 중국의 과학자 사회와는 분리되어 있던 것일까? 그렇다면 과학사에서 과학과 현학 논쟁을 연구해야 할 이유란 무엇일까? 조봉래는 이 논쟁이 ‘과학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철학적인 문제로 시작하였음에도, 이후 학술 외적인 요인들이 개입하며 결국 순수한 학술 논쟁으로 마감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¹³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학술장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의 분리를 분석의 전제로 사용할 수 없음을 과학사의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 알고 있다. 그러므로 과학과 현학 논쟁에서도 우리가 논쟁 참여 과학자들의 이데올로기적 담론과 과학 연구의 실천 경험을 병치해 놓는다면 그 전과는 다른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과학과 현학 논쟁에서 과학 만능주의로 읽히는 덩원지양의 담론이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는 현장 연구를 추구한 그의 지질학 연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 덩원지양의 지질학, 더 나아가 그가 영향을 미친 중국 지질학의 계보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일 수 있지 않을까.¹⁴

¹² 중화 민국, 5.4 운동 시기부터 중화 인민 공화국 성립 이전까지 중국의 과학 사상을 분석한 콰(Kwok)은 과학과 현학 논쟁이 중국에서의 과학 이데올로기와 사회 이론의 영역에서는 매우 중요했던 반면, 중국 내 과학의 실행을 이해하는 데에는 실패했고, 과학주의가 “과학 그 자체”의 발전을 도운 적은 결코 없었다고 하였다. [Kwok, *Scientism in Chinese Thought* (cit. n. 11)]. 파티판(Fa-ti Fan) 역시 과학과 현학 논쟁은 중국의 정체성 형성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했던 논쟁이었지만, 이데올로기와 과학의 권위에 대한 지식인들 사이의 논쟁이었기 때문에 덩원지양 외에 훈련받은 과학자들은 참여가 미미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Fa-ti Fan, “The Controversy over Spontaneous Generation in Republican China Science, Authority, and the Public,” in Jing Tsu and Benjamin A. Elman, eds., *Science and Technology in Modern China, 1880s-1940s* (Leiden: Brill Academic Publishers, 2015), 209-244 참조. 그러나 참여한 과학자가 거의 없다는 평가는 사실과 다르다. 『과학과 인생관』에 수록된 글의 필자들을 살펴보면 총 20명 중 중심 논자였던 덩원지양을 제외하고도 4명의 과학자가 포함되어 있고, 현학파의 대표라 알려진 장권마이 역시 학부에서 과학을 공부한 이력이 있다.

¹³ 조봉래, “1920年代 ‘科學과 人生觀 論爭’에 관한 小考”, 『한국철학논집』 18 (2006), 295-318.

¹⁴ 중국 지질학사 연구자인 그레이스 셴(Grace Shen)에 따르면 덩원지양은 외세에 굴복한 중국

과학과 현학 논쟁은 학술적이면서도 이념적인, 그리고 다분히 정치적이기까지 했던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다.¹⁵ 중국의 역사에서 공산당의 사회주의 사상이 단지 담론 수준에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듯, 과학과 현학 논쟁 역시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논쟁에 참여한 각 행위자들의 실천적 맥락의 종합으로 이해해 본다면 이 논쟁을 과학사 연구에서 배제하는 것은 설부른 판단일지도 모른다.¹⁶ 20세기 중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논쟁의 ‘사료’인 『과학과 인생관』이 뒤늦게나마 한국에 번역·출판된 일은 한국에 있는 연구자에게 매우 감사한 일이다. 과학사 영역에서도 이번 번역본을 발판 삼아 담론과 실천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 연구가 가능하다면, 가령 오늘날 서구 과학이 중국에 어떻게 뿌리 내렸는지, 당시 과학자들의 실행에서 어떤 특징이 발견되는지 등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의 지난 치욕을 극복하고자 하는 집념을 가진 연구자였다. 당원지양에 대한 선의 연구는 다음을 참조. Grace Yen Shen, *Unearthing the N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4). 앞서 선은 당원지양을 심도 있게 연구한 퍼스(Charlotte Furth)의 연구가 그의 이데올로기와 전문적 실행의 측면을 연결하지 못하는 간극이 존재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당원지양에 대한 퍼스의 연구는 Charlotte Furth, *Ting Wen-chiang: Science and China's New Cultur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참조.

¹⁵ 최근에 과학과 현학 논쟁을 두고 중국인들이 능동적인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문제를 찾고 그 해결을 추구한 시도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거나, 이 논쟁이 단순히 학술적 차원의 논쟁이 아니라 당시 중국이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지식인들의 이념적이자 실천적인 논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연구도 나왔다. 허남진·박성규, “과학과 인생관(현학) 논쟁”, 『인문논총』 47 (2002), 177-207; 허중, “1920년대 ‘과학현학’ 논쟁과 ‘救亡’ 의식” (cit. n. 5), 35-36; 김창규, “1920년대 中國에서 ‘玄學’과 ‘科學’ 論爭”, 『중국사연구』 78 (2012), 129-160; 안대옥, “五四시기 ‘科學’과 人生觀 論戰과 科學主義 再論” (cit. n. 11).

¹⁶ 공산당의 이념과 실행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로는 슈말저(Sigrid Schmalzer)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Sigrid Schmalzer, *The People's Peking Man: Popular Science and Human Identity in Twentieth-Century Chin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